

생활한복, 불자의 옷 '자리매김'

아름다우면서 편한 옷. 생활 한복입는 사람들이 늘어나며 짙어 가는 날 입는 옷도 기존의 법복에서 생활한복으로 변화하고 있다. 단순한 화백 법복에서 벗어나 쪽색, 속색, 저자색, 감색, 소색, 민색, 무색 등 전통염료로 물들인 생활한복을 차려입은 신도들의 우수한 아름다움이 법담으로 스며들고 있는 것이다.

서울의 구룡사 유치원, 송인동 정통사 유치원, 봉은사 종무소, 부산의 삼광사 유치원 등이 일복이나 유니폼으로 생활한복을 입고 있다. 육수종합사회복지관은 행사용으로 생활한복을 장만했고, 한마음선원 출신자원은 청년회가 법화날 입기 위해 생활한복을 장만해 신도들에게도 퍼주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생활한복을 원복으로 택한 구룡사, 청룡사 유치원은 아이들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도 무척 좋아한다. 두 유치원 모두 노란색 바지(치마) 저고리를 채택해 입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하복도 생활한복을 구입할 방침이다. 삼광사 유치원은 등복·하복 모두 마련했다. 하복의 경우 남자어린이는 연속색 바지 저고리를, 여자어린이는 분홍색 치마 저고리를 입고 수업을 받는다. 매주 한시간씩 참선수업을 하는 청룡사 유치원의 경우 유아들이 한복차림으로 참선에 들어 색다른 분위기를 자아내기도 한다.

신도들의 옛날 법복 착용은 논란의 소지가 많았다. 스님들은 "여자신도들이 화장을 한채 화백법복을 입은 모습은 상당히 어색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한복은 선이 부드럽고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데다가 몸매가 드러나지 않아 상을 초월할 수 있는 불교적인 옷"이라고 평하고 있다. 한복을 올리거나 참선을 할 때도 편안한 자세로 입할 수 있어 법복에 못지 않게 효과적이다.

짙어 가는 불자들이 선호하는 한복 디자인은 바지스타일. 남자를 불문하고 바지를 찾는 이유는 절하기 편리하고 운신의 폭이 치마보다 넓기 때문이라고. 이제는 짙어 갈 때 생활한복으로 단장한다는 김무상신부님은 "편안함에 끌려 입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짙어 갈 때 꼭 챙겨입는다"며 "편하

**참선·예불등 법복으로 제격
쪽빛·속색·저자색·민색등
전통염료로 물들여 아름답다
30~40대 보살·거사들 '애용'
사찰 유치원생복으로도 채택**



◇아이들에겐 생활한복이 더 편하고 자유롭기만 하다.

면서도 격식을 차린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마음이 차분해져서 좋다"고 말한다.

개개인은 물론 단체복으로 애용되는 등 생활한복이 대중화되면서 제작업체들도 늘어났다. 제작업체들은 다양한 디자인과 색상의 생활한복들을 선보이고 있어 소비자층 확대에 한 몫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조계사 앞에 생활한복 바탕이 들어왔다. 연지곤지, 예진술, 돈오하우스 등 전문매장들도 문을 열었다. 관북불교회관의 경우 자체 판매를 실시하고 부처님오신날 연등축제 거리장터에서도 생활한복 매장이 10여개나 설치되는 등 불교계에 생활한복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이다.

93년 이후 파리올림픽 '오트쿠튀르'에 한복의 아름다움을 소개해 왔던 한복 디자이너 이영희씨도 올해 4월 생활한복 브랜드 '한울'을 선보였다. 이씨는 "10여년 전만 해도 생활한복을 만들어도 전통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강했지만 이제는 편리감각으로 생활한복을 만들겁니다"고 말했다.

가격은 브랜드마다 차이가 있지만 어른 10만원에서 20만원, 어린이는 6만원에서 10만원 선. 단체복을 주문할 때도 30벌~50벌이상 주문하면 5%~30%까지 할인이 가능하다. 모시 명주 소재의 40만 원~80만 원대를 호가하는 제품도 나왔다. 이처럼 생활한복이 다양해지면서 업체난립으로 인한 디자인의 저급화와 함께 지나치게 고가화하는 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복문화연구회 조효순회장은 "한복을 21세기 세계 속의 문화 상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전통한복의 올바른 전수방법과 생활한복의 재창조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며 "편리하면서도 한복 고유의 자태를 잃지 않는 디자인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적 어려움이 닥치면서 '우리 것을 찾자'는 사회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고, 신도들의 화백 법복 착용을 꺼리는 스님들의 지도에 힘입어 생활한복이 짙어 가는 날 입는 옷으로 정착될 전망이다.

김지연 기자 (ygyang@buddhopia.com)



◇단정하게 한복을 차려입고 부처님전에 왔던 여신도들.



◇바지차림은 절에서 참배하기 쉬워 신도들이 즐겨입는다.

생활한복을 어떻게 하면 좀더 세련되고 편안하게 입을 수 있을까.

편안한 옷이라는 인식 때문에 갖춰 입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생활한복이라도 정장이나 외출용, 특히 사찰에 갈 때는 제대로 차려입어야 예를 갖춘 옷차림이 된다.

기본적인 옷차림은 여자의 경우 조끼와 치마, 허리부분에서 연결된 원피스형 조끼허리치마와 둥근깃 저고리이고, 남자의 경우 바지와 저고리인데 그 안에 속저고리를 꼭 받쳐입어야 한다. 생활한복이라도 남자두루마기는 실내에서 손님을 맞을 때도 입는 것이 원칙이다. 여자는 벗는 것이 예의.

생활한복을 고를 때는 화사한 색상을 선택해 보는 것도 좋다. 진열되어 있을 때는 혼스러워 보여도 입으면 화려해보여 젊은층에서 선호하고 있다. 젊은층의 경우 원색적인 강렬한 색상을 매치시켜 입어보는 것도 좋을 수 있는 방법이다.

남자와 여자조끼는 모두 바지나 치마와 같거나 비슷한 색상으로 선택하면 키가 커보이고 날씬해 보인다. 조끼 안에 받쳐입는 속저고리는 명도가 낮거나 아예 흰색이 좋다. 생활한복을 입을 때 신경써야 할 것 중의 하나는 바로 신발. 고무신을 신는 경우도 더러 있지만 이보다는 깔끔하게 장식이 없는 단화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전통 모양을 본따 가족님들도 나와 있지만 8~9만원하는 신발을 장만하는 것보다는 집에 있는 단화를 활용하는 것이 절약의 한 방법. 여자의 경우 원피스나, 롱스커트 형태는 하이힐도 무난하게 어울린다. 단, 남자 여자 모두 운동화는 피하는 것이 좋다.

악세서리를 착용할 때는 화려한 장식이나 요란한 색채는 피해주는 것이 예의다. 단아한 느낌의 심플한 디자인이나 젊은층의 경우 무채색의 인디언풍 악세서리도 무난하다.

생활한복 입으려면

**속저고리 입어야 예의
장식없는 단화 어울려**

◇주요 생활한복 업체

브랜드	연락처
연지곤지	(02)3461-8552
예배	(02)737-0804
한마음	(02)729-1401
여럿이 함께	(02)3142-1001
일경이 우리옷	(02)744-5606
예진술	(02)738-5100
돈오하우스	(02)732-3154
한울	(02)547-0638
물심나이	(02)745-7451
우리들의 벗	(02)392-9114
삼매야	(02)333-2009
아라가야	(02)733-0412
한올라리	(02)3143-0607
한겨레	(02)743-8834
원비어린가	(02)765-5255
자연의 벗	(02)736-2901
강산술래	(02)723-3937
새내	(0371)734-1133
대님	(051)625-4547



◇한마음선원 출신자원 청년회는 생활한복을 맞춰입고 군법당 등에 위문공연을 다니고 있다.

★ '시방세계'는 불자들의 관심과 사선이 가는 법계소식을 집중 조명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문의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22-0698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문득문 산지암에 안배 걸리고
구만산 비파보여 괴여년 전회상배
그 뒤를 당당히도 극복 승은 이명사
이묘한 열화이스 승고녀니 나루시고
안후도도 녹히 배신 연옥 좌공님!

주지 요상 스님

적멸보궁 자명사 개원 대법회

한국 최대 백옥 와불 이운식

대법회 안내

■중 명: 한국불교 법륜종 종장 — 華대종사
대한불교 총화종 前종정 治翁대종사
대만 만불사 부주지 上常노사
(대만성 자명상공고교 인사장)

■일 시: 1998년 7월5일(음 윤5월12일) 오전 11시

■장 소: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구만리 산84
적멸보궁 자명사 ☎ (0366)434-1571/435-1571

◆교통편: 철도 경춘선 경춘역에서 일행산행선으로 15분거리
(경춘역서 자명사지 / 세븐백스기 연결됩니다.)
시내지하 출발/종단선 용문사 역에서 일행산행선으로 7시 출발합니다.
안후선 구의역에서 마일버스를 타시면 20분거리입니다.

응답사 ☎(02)446-1571

◆ 자명사는 개원을 맞아 만등으로 무명을 밝힙니다. 민등불사에 많은 동참바랍니다.

구만산 적멸보궁 자명사 주지 요상 스님